

# 강진군, 가우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박차

8월 스카이버이크 착공  
2024년까지 3700억 투입  
알파인코스터·숙박시설 설치

강진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우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남도, (주)GFI개발과 가우도 일원에 37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체결 내용은 1단계로 저두-가우도-망호를 잇는 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버이크, 알파인코스터 등 체험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 대구면 저두리 일원에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저두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고, 올해 2월에는 가우도 일원 민간투자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GFI개발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금융참여 관련 당사자 간 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했다. 오는 8월 스카이버이크 착공을 목표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접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주무부서인 개발사업지원단 담당자와 관련 용역회사가 입회해 측량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저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강진군은 가우도를 남해안 관광거점 육성을 목표로 (주)GFI개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국내여



강진 가우도에 스카이버이크 조성을 위한 지적측량 작업이 지난 1일 실시됐다. <강진군 제공>

행 활성화에 맞춰 가우도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화순 동북농협 김정수 조합장 NH농협생명 연도대상 1위



화순 동북농협 김정수(사진 오른쪽) 조합장이 제 33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 그룹 1위를 차지했다. 동북농협 창립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50년 만에 이룬 쾌거다. 김 조합장은 "이러한 모든 성과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이용 덕분이다"이라며 "임직원들이 각종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다한 노고와 오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조합을 애용해준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고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전체 조합원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북농협은 2021년도를 도약의 해로 삼아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과 NH농협생명 연도대상 2연패 달성, 건전 결산 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성군, 부자농촌 실현 식량산업 5개년 추진

'식량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회  
장성군이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장성군은 최근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장성군이 시행할 식량산업 종합계획의 기틀을 마련한다. 장성군은 용역을 통해 식량 적정 자급률과 시설 투자 수요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식량 생산과 가공 분야, 유통시설 설치와 운영 등 식량산업 전반의 장기 계획을 수립

한다. 종합계획은 오는 9월 말 최종 보고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림부 승인을 받으면 장성군은 향후 5년간 각종 국비 연계사업 신청 자격을 얻는다. 장성군은 식량작물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 미국중합처리장 비 매입자금 추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업인, 농업협동조합, 장성군이 삼두마차를 이뤄 잘 사는 부자 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과수화상병 방지 예찰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 함평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식물검역병인 과수화상병과 자두곰보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배농가를 상대로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지난해 집중호우 붕괴 직전 화순 삼천교 복구 위해 철거



지난해 집중호우로 붕괴 직전까지 갔던 화순 삼천교에 대해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시작됐다. 화순군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삼천교를 복구하기 위해 철거작업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삼천교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물이 불어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한때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다. 군은 삼천교 재해복구 공사를 위해 지난달 우회 도로를 개설했다. 7월까지 붕괴위험이 있는 다리를 철거한 뒤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난해 삼천교가 붕괴될 긴급 상황에서 주민 대피와 응급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 큰 피해를 막았다"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삼천교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장흥 정남진 물과학관 재개관

방역 지침 준수 입장·관람  
장흥군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진정됨에 따라 그동안 임시 휴관중이던 정남진물과학관(사진)을 지난 1일부터 재개관했다. 장흥읍에 위치한 정남진물과학관은 4층 건물로 홍보관과 터치풀 및 수족관, 4D영상관, 물순환 체험관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군은 국공립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체크, 방문기록부 작성, 관람객 간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를 통해 입장 및 관람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남진물과학관은 수열에너지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 클래스룸, 수열홍보관 조성 등 리모델링을 추진해 IT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 시설로 교체해 차세대 스마트 그린도시 물과학관으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한 관람객들이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남진물과학관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h2 style="font-size: 2em;">미스트크리너</h2> <p>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p>	<h2 style="font-size: 2em;">더스트크리너</h2> <p>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p>	<h2 style="font-size: 2em;">전기집진기</h2> <p>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p>
---	--	---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